



“브라더~동반 메달 가져!” 태권도 김훈(오른쪽)과 프로야구 김민은 한국을 대표할만한 스포츠 인재들이다. 형제는 각기 다른 종목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 동반 메달을 노리고 있다. 최근 수원KT위즈파크에서 태권도복과 야구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한 김훈-김민 형제. 수원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동생 선발때마다 직관” “형은 든든한 후원자”

-김훈

-김민

김훈
“동생 운동신경 타고 났지만 야구 빼곤 내가 구기종목 짱”

김민
“고교때 야구희비는 형의 몫 작년 가족여행 평생 못잊어”
도쿄올림픽 동반 금메달 꿈꿔

스포츠 선수가 자신의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에 비견될 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 이토록 힘든 일을 친형제가 해낸다면? 태권도 김훈(27·삼성에스원)과 프로야구 김민(20·KT 위즈)은 그 꿈을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훈은 2013푸에블라 세계선수권 은메달로 처음 이름을 알렸다. 김민은 KT의 1차지명을 받아 지난해 프로에 데뷔했고, 올해 선발진의 한 축을 맡으며 잠재력 있는 유망주에서 확실한 미래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형제 올림픽 동반 메달’이라는 목표를 향해 성실히 나아가고 있다.

●운동신경 타고난 동생, 자상한 형
-형제가 각자의 종목에서 이름을 알리기는 쉽지 않다. 어릴 때부터 남달랐을 것 같은데?
김훈(이하 훈): “사실 민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단단히 빠졌다.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던 외동아들에서 졸지에 형이 된 것이라 어린 마음에 심통이 좀 났다. 민이가 심부름을 도맡아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도 풀렸다(웃음).”
김민(이하 민): “초등학교 때 형의 태권도장을 따라가던 기억이 난다. 시범단으로 활동하던 형은 정말 멋있었다. 훈련을 마치고 함께 토스트를 먹으며 집에 가던 모습은 여전히 선명하다.”
-남자 형제끼리는 종종 치고 박고 싸우는데...
운동선수 형제끼리 싸운다면 살벌했을 것 같다.
민: “태권도 국가대표에게 어떻게 까들겠나(웃음). 그저 일방적이었던 것 같다.”
훈: “민이가 야구를 하던 중에 유도를 배운 적이 있다. 나름 소질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한 번 겨뤄보자고 하더라(웃음). 민이는 초등학교생, 난 고등학교생이었다. 참 귀여워보였다. 민이는 태권도를 2년 이상 하면서 2품까지 땀었다. 소질이 있었다. 하지만 공으로 하는 건 야구 빼고 내가 다나왔다.”

●2020도쿄 올림픽, 영어어가는 동반 메달 꿈
-최근 동생의 선발등판 경기마다 형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응원하는 모습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다.
훈: “6월부터는 정말 바쁘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시즌1을 시작으로 6월말 호주오픈까지 눈 코 뜰 새 없이 대회가 이어진다. 응원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하자는 생각이다. 지금도 경쟁한 국가대표 선수들과 맞대결하는 민이 모습을 새롭고 멋지다.”
민: “형은 예전부터 나를 많이 챙겨줬다. 지난해 초 2군에 있을 때는 진전 국가대표 선수촌의 심리 선생님에게 내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전해줬다.”
-아들 둘을 운동선수로 키운 부모님이 정말 고생하셨을 것 같다.
훈: “민이가 프로에 입단하면서 가족 넷이 다같이 모이기 정말 어려워졌다. 지난해 군산 여행을 갔을 때 너무 행복했다.”
민: “본가가 경기도 양평인데, 내가 수원 유신고 입학했을 때 어머니와 함께 자취했다. 그때 키가 훌쩍 크면서 구속도 올라 성적이 좋아졌다. 어머니께 감사드리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당시 자취방을 형이 지

원해줬다. 중고등학교 때 야구 회비도 형이 전부 내줬다. 가족들에게 받은 게 정말 많다.”
-아직 남은 선수 생활이 길다. 각자의 목표가 있다면?
훈: “개인적인 목표보다 둘이 같은 대회에 나가는 게 목표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큰 대회에 나가 나란히 메달을 따고 싶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가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민이가 너무 잘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다.”
민: “올림픽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무대가 아니다. 하지만 형과 함께 대회에 나가 보고 싶긴 하다. 내가 고등학교 때 함께 전국체전에 나가 형이 금메달, 내가 동메달을 딴 적이 있다. 메달 인증샷을 다시 찍어보고 싶다.”
-서로에게 한마디씩 남긴다면?
훈: “야구는 민이가 훨씬 더 잘 안다. 해줄 말이 없다. 다만 부모님께 조금만 더 살가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민: “야구장 그만 오고 더 바쁘게 살았으면 좋겠다(웃음). 형은 관중석에서 응원할 때보다 태권도 할 때가 훨씬 멋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타이거 우즈

‘골프황제’를 돕는 ‘일일 캐디’를 하려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엄청난 돈까지 내야 한다. 28일(한국시간) 골프 전문매체 골프위크에 따르면 지난 주말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MGM 파크에서 열린 타이거우즈재단 자선 행사에서 내셔널펀드 창립자이자 CEO인 데이브 길버트가 ‘우즈의 일일 캐디’ 영광을 안았다. 길버트는 12월 바하마에서 열리는 월드히어로챌린지 프로암에서 우즈의 캐디백을 메고 18홀 플레이를 함께한다.

눈길을 끄는 건 일일 캐디가 되기 위해 길버트가 적어낸 금액. 그는 7만5000달러(약 8900만 원)를 내기로 했다. 지난해 우즈의 ‘일일 캐디’ 낙찰가격(5만 달러)보다 정확히 50% 오른 금액이다. 타이거우즈재단 관계자는 “올해도 우즈의 캐디(조 라카바)가 하루 쉬게 됐다”며 “타이거점 경매에서 재단의 한 후원자(길버트)가 월드챌린지 프로암대회에서 우즈의 백을 메는 데 7만5000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랭킹 5위 우즈는 30일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뮌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파72)에서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총상금 910만 달러·약 108억2000만 원)에 출전한다. 우즈는 이 대회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연패를 달성했고 2009년과 2012년에도 우승하는 등 모두 5차례나 정상에 올랐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로 창업에 **성공**하실 분을 찾습니다!

꽃담은소 메뉴의 특성
프리미엄 생고기와
양념갈비의 특별한 조합

성공 신화!

죽었던 상점을 특급 상점으로!
B급상권 & 빈점포 대박상점의 성공신화!
매출하락 고민의 점주님들 고민해결!

꽃담은소의 성공 포인트!

- 최소자본으로 창업가능!
- 완제품 공급으로 주방장이 필요없는 시스템!
- 육류유통 20년 경력! 최상의 육류공급!
- 숯불 걱정없는 착화로스타 방식의 안전한 시스템!

메뉴구성

양념메뉴	생고기메뉴	와규메뉴
서서갈비	꽃살	와규등심
돼지양갈비	살치살	와규치마살
포크맛갈비	갈비본살	와규갈비본살
소이동갈비	한우채끝등심1+	

가맹문의 02-418-3113